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석민현¹ · 김은혜²

차의과학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과 부교수¹, 실버산업복지학과 조교수²

The Burden of Aged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k, Min-Hyun¹ · Kim, Eunhye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eniors Business Management and Welfare, CH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burden of aged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factors. **Methods:** The subjects were 123 caregivers aged over 65 who were caring for 18-year-old or old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tool of this study was a structured questionnaire on family burden.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3 to 25, 2010, and analyzed by Cronbach's alpha,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using SAS 9.2 program.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lderly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ceived a moderate level of burden. The burden from concern over their children's future was highest, and economic and physical burdens were higher when the parents were younger. Burd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s'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perceived health status, disease, the costs of caring for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s characteristics such as disability rating, health status, and ADL.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elderly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 need to improve their health status and assess comprehensive policies.

Key Words: Aged, Parents, Disabled children, Caregiver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44만 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6.4% (약 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경제적 능력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for Health & Welfare [MHW], 2010).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축소와 함께 사회적 지원을 상실하게 되며, 지적 능력의 변화, 성격 및 행동특성의 변화, 건강수준의 저하 등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의존성이 증대되

어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Maurer & Smith, 2009). 현재 노인인구의 건강관리 및 복지 영역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의 최대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각종 사고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09년 12월말 약 240만 명으로 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0세 이상 성인 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35%는 중증장애인이며, 97%가 재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재활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지원 및 고용지원을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 제안되고 있다(MHW, 2009b). 일 농촌 지역 보건소에 등록·관리되고 있

주요어: 노인, 부양부담감, 장애자녀, 돌봄제공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Eunhye, Department of Seniors Business Management and Welfare, CHA University, 222 Yatap-dong, Bundang-gu, Sungnam 463-836, Korea. Tel: 82-31-850-9321, Fax: 82-31-543-2818, E-mail: eunhyekim@cha.ac.kr

투고일 2010년 9월 29일 / 수정일 2010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7일

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64세로 매우 높았고, 주간호제공자는 배우자 및 가족이 83.6%를 차지하고 있어 재가 장애인,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의 실태 파악 및 보건복지 요구,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매우 필요로 된다(Kim & Jung, 2007).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은 가족의 주요 역할이지만, 장애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가정의 양육경험과 차이가 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연령이 경제 활동 연령에 해당되어 필요로 되는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애자녀가 성인이 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부모의 연령이 점차 증가하여 경제력을 상실하는 시기까지 장애자녀를 돌보게 되는 경우 노인부모는 다양한 형태의 자녀 부양부담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노인부모가 장애자녀를 돌보는 경우, 장애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연령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부모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노화와 경제력의 감소,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감소 등으로 자신과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 능력이 감소하며, 자신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사망한 후 장애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매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Greenberg, Seltzer, & Greenley, 1993; Haveman, Berkum, Reijnders, & Heller, 1997; Smith, Hatfield, & Miller, 2000).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일반 가정에 비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전체 수급대상가구 중 19%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가구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09).

장애자녀를 돌보는 가족이나 부모는 자녀의 행동과 지적 장애, 인지변화 등과 관련된 사건, 이와 관련된 간호요구의 증가에서 오는 불편감과 부정적인 문제를 느끼게 되며(Zarit, Reever, & Bach-Peterson, 1980), 장애 및 건강관리에 지출되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여건의 악화, 사회활동의 제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소진감 등이 겹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대상자만큼이나 간호제공자도 부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된다(Lee, 1995). 이러한 부담감은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각하게 되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치명적인 건강문제가 있는 아동 부모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나(Lee & Eo, 2000; Paik & Park, 1996; Park, Park, Jung, & Kim, 2001;

Sung & Paik, 1999) 치매 및 뇌졸중 등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부모나 배우자 등을 돌보는 자녀 및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Choi & Baek, 2006; Hong et al., 2000; Kim & Lee 1999; Lee & Kim, 2009; Suh & Oh, 1993),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에 관한 보고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일반적 현황 및 부양부담감의 수준을 알아보고, 연령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인식 차이,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고찰함으로써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연령 변화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인지 정도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연령 변화에 따른 부양부담감 인지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부양부담감

돌보는 가족의 행동, 상태변화와 같은 상황이나 사건과 관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서, 신체, 사회 및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Zarit et al., 1980)로 본 연구에서는 Oh, Chae와 Cheon (2002)에 의해 개발된 가족부담감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재가 장애인 가구 중 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장애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지역주민센터 1곳의 협조를 얻어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며, 면접 조사 전에 대상 가정에 전화로 연구의 목적 및 취지, 자료수집방법 및 소요시간 등을 설명한 뒤,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123명의 노인부모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가 부부인 경우에는 자녀를 주로 돌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6월 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보조원은 10명이었으며, 2명씩 한조를 이루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한 뒤,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직접 읽어주고 답하게 한 후 연구보조원이 설문지에 기입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 설문지 내용, 설문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설문지 전체를 정독하게 한 후,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연구보조원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사전교육 소요시간은 약 50분 정도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노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2문항, 장애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1문항, 부양부담감 측정도구로 구성되었다.

성인장애자녀를 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해 2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노인부모의 현재 부양부담감 수준과 영역별 부양부담감 정도를 측정을 위해 Oh 등(2002)이 개발한 부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Oh 등(2002)의 도구는 5점 척도로, 부담감의 의존적 영역 4문항, 경제적 영역 3문항, 정서적 영역 6문항, 조정 및 요구 영역 6문항, 돌봄의 평가/의미 영역 4문항, 미래 안نگ 영역 2문항의 6개 하위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영

역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 .52 \sim .80$ 의 범위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수준을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부양부담감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부양부담감의 신체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 대해 각 1개의 문항으로 30~40대 때 느꼈던 부양부담감과 65세 이후에 느낀 부양부담감의 정도를 각각 기입하게 하였다. 부양부담감은 그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인장애자녀를 둔 노인부모와 성인장애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부양부담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시기별 부담감 인지정도의 차이검정은 t-test를 이용하였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와 성인장애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검정은 t-test, ANOVA,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여성이 82.9%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65~69세가 27.4%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74.8세였다. 결혼 상태는 30.1%의 노인만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69.9%의 노인은 배우자가 없었다. 77.2%의 노인은 종교가 있었으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전체 노인의 72.8%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73.2%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 주 수입원은 82.1%가 정부 지원금이었으며, 가구 당 월수입은 50~80만원 미만이 51.2%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인 노인이 전체 대상자의 88.6%를 차지하였다. 장애자녀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25만 원 미만이 46.7%였다.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70.7%의 노인이 본인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질병이 있는 노

인이 88.6%였다.

성인 장애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성별은 남성이 70.7%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40~49세가 44.7%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44.7세였다. 결혼 상태는 22.8%의 성인 장애자녀만이 배우자가 있었고,

77.2%는 미혼이었다. 54.5%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은 52.8%가 고졸 이상이었다. 장애 등급은 2급이 49.6%로 가장 많았고, 1급도 26.8%였으며, 장애 원인은 후천적인 경우가 74.8%였고, 평균 장애기간은 평균 26.3년이었다. 42.7%의 장애자녀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나, 57.3%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 성인 장애자녀가 67.5%로 32.5%의 장애자녀만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노인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장애자녀의 건강수준은 51.2%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34.2%의 부모만이 자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ged Parents with Adul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21 (17.1)
	Female	102 (82.9)
Age (year)		74.8±6.67
	65~69	34 (27.4)
	70~74	33 (26.6)
	75~79	26 (21.0)
	≥80	30 (25.0)
Marital Status	Married/living together	37 (30.1)
	Single	86 (69.9)
Religion	Yes	95 (77.2)
	No	28 (22.8)
Education	None	61 (49.6)
	Elementary	31 (25.2)
	Middle school	15 (12.2)
	≥High school	16 (13.0)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rvice	Yes	90 (73.2)
	No	33 (26.8)
Medical insurance	Medical aid	90 (73.2)
	Health insurance	33 (26.8)
Income sources	Labor	4 (3.6)
	Self-employed	3 (2.7)
	Government grants	92 (82.1)
	Pension	5 (4.4)
	Workfare program	4 (3.6)
	The help of family and friends	4 (3.6)
Family income (10,000 won)	< 50	27 (21.9)
	50~< 80	63 (51.2)
	80~< 100	19 (15.5)
	≥ 100	14 (11.4)
Costs of caring for disabled children (10,000 won)	< 25	49 (46.7)
	25~< 50	29 (27.6)
	≥ 50	27 (25.7)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14 (11.4)
	Moderate	22 (17.9)
	Unhealthy	87 (70.7)
Chronic disease	Yes	109 (88.6)
	No	14 (11.4)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dul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87 (70.7)
	Female	36 (29.3)
Age (year)		44.7±8.11
	< 40	29 (23.6)
	40~49	55 (44.7)
	≥ 50	39 (31.7)
Marital Status	Married/living together	28 (22.8)
	Single	95 (77.2)
Religion	Yes	61 (54.5)
	No	52 (45.5)
Education	Elementary	29 (23.6)
	Middle school	29 (23.6)
	≥ High school	65 (52.8)
Disability Rating	1	33 (26.8)
	2	61 (49.6)
	≥ 3	29 (23.6)
Causes of disability	Congenital	31 (25.2)
	Accident/etc	92 (74.8)
Period of disability (year)		26.3±13.85
	< 10	25 (20.6)
	10~19	22 (18.2)
	20~29	29 (24.0)
	30~39	26 (21.5)
	≥ 40	19 (15.7)
ADL	Independent	53 (42.7)
	Moderate	38 (30.7)
	Dependent	32 (26.6)
Rehabilitation	Yes	40 (32.5)
	No	83 (67.5)
Health status	Healthy	42 (34.2)
	Moderate	18 (14.6)
	Unhealthy	63 (51.2)

의 자녀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2.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은 125점 만점에 75.4점(5점 만점에 3.0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하위영역별 부양부담감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자녀의 미래 안녕에 대한 부양부담감이 4.2점(8.3±1.49)으로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경제적 부양부담감이 3.2점(9.7±2.78), 의존적 영역 3.1점(12.3±3.78), 정서적 영역 3.1점(18.6±4.91)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은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부모가 젊었을 때부터 장애아동을 돌본 선천성장애자녀 노인부모 31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인장애자녀를 둔 노인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젊었을 때(30~40대)와 자신이 노인이 된 후(65세 이후) 부양부담감을 비교한 결과, 젊었을 때의 부양부담감이 3.4점인데 비해 현재의 부양부담감은 3.9점으로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7, p=.006$). 하위 영역별로는 신체적 부양부담감($t=3.47, p=.001$), 경제적 부양부담감($t=2.84, p=.0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부양부담감($t=0.57, p=.572$)과 정서적 부양부담감($t=1.18, p=.247$)은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은 성별($t=2.20, p=.029$), 장애자녀 돌봄 비용($F=6.54, p=.002$), 본인의 건강상태($F=5.08, p=.007$), 질

병 유무($t=2.20, p=.02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인장애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는 장애등급($F=7.10, p=.001$), 장애자녀의 일상생활 수행정도($F=10.32, p<.001$), 장애자녀의 건강상태($F=6.27,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조사 결과,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와 성인이 된 장애자녀의 평균 연령은 각각 74세와 44세로 높아, 성인이 된 장애자녀와 노인부모가 매우 고령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대부분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장애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장애자녀 역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노인부모의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건강관리의 문제, 점차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재가 장애인의 돌봄에 관한 문제, 노인부모가 사망한 후 노인이 된 장애인의 건강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사회문제임을 암시하게 한다.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은 현재 건강문제가 있었고,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촌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3.4%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건강수준을 보통 이하로 응답한 노인이 52.4%인 점(Park & Oh, 2003), 제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71.8%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건강수준을 보통 이하로 응답한 노인이 37.3% (Son, Choi, & Song, 2008)인 것에 비하면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건강상태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화와 관련

Table 3. Aged Parental Burden (N=123)

Variables	M±SD	Range
Burden: sum	75.4±13.22 (3.0±0.53)	35~104
Dependency	12.3±3.78 (3.1±0.95)	4~20
Economy	9.7±2.78 (3.2±0.92)	3~15
Emotion	18.6±4.91 (3.1±0.82)	6~29
Coordination and needs	15.9±4.32 (2.7±0.72)	6~26
Care evaluation	10.7±2.92 (2.7±0.73)	4~19
Future	8.3±1.49 (4.2±0.75)	3~10

Table 4. Aged Parental Perceived Burden according to Age (N=31)

Variables	Young parents (past)	Aged parents (≥65)	t	p
Burden: sum	3.4±0.85	3.9±0.95	2.97	.006
Physical burden	3.2±1.26	4.3±1.03	3.47	.001
Economic burden	3.6±0.91	4.2±1.12	2.84	.008
Social burden	3.2±1.06	3.4±1.36	0.57	.572
Emotional burden	3.5±1.53	3.7±1.29	1.18	.247

Table 5. Burden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ged Parents and Adul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N=12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Aged parents	Gender	Male ^a	69.6±14.79	2.20	.029	a < b
		Female ^b	76.5±12.62			
	Age (year)	65~69	77.8±14.21	1.35	.261	
		70~74	75.8±12.05			
		75~79	75.8±13.47			
		≥80	71.3±12.81			
	Marital Status	Married/living together	74.8±14.42	0.42	.675	
		Single	75.8±12.49			
	Religion	Yes	75.6±12.26	0.61	.546	
		No	73.4±16.70			
	Education	None	77.4±13.20	1.60	.193	
		Elementary	75.6±12.78			
		Middle school	70.6±13.20			
		≥High school	71.4±13.37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rvice	Yes	74.7±12.65	1.16	.249		
	No	77.9±14.35				
Medic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73.7±14.89	0.75	.455		
	Medical aid	75.8±12.67				
Family income (10,000 won)	< 50	73.9±13.88	0.54	.652		
	50~<80	76.6±13.28				
	80~<100	72.7±12.39				
	≥100	75.8±13.35				
Costs of caring for disabled children (10,000 won)	< 25 ^a	69.2±14.28	6.54	.002	a < b, c	
	25~< 50 ^b	78.3±11.03				
	≥ 50 ^c	78.3±11.89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a	66.1±12.97	5.08	.007	a < b, c	
	Moderate ^b	73.1±13.94				
	Unhealthy ^c	77.4±12.45				
Chronic disease	Yes ^a	76.1±12.41	2.20	.029	b < a	
	No ^b	67.7±17.46				
Adul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Gender	Male	75.5±14.14	0.21	.837	
		Female	74.9±10.89			
	Age (year)	< 40	73.1±16.24	0.55	.577	
		40~49	76.3±12.64			
		≥ 50	75.5±11.55			
	Marital Status	Married/living together	74.9±15.78	0.18	.856	
		Single	75.4±12.48			
	Religion	Yes	75.0±13.40	0.14	.889	
		No	74.7±13.39			
	Education	Elementary	78.8±12.37	1.35	.262	
		Middle school	74.5±12.03			
		≥High school	74.1±13.94			
	Disability Rating	1 ^a	76.2±9.53	7.10	.001	c < a, b
		2 ^b	78.7±12.04			
≥ 3 ^c		67.8±16.41				

Table 5. Burden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ged Parents and Adul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tinued) (N=12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Adul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uses of disability	Congenital	76.5±15.31	0.58	.564	
		Accident/Etc	74.9±12.48			
	Period of disability (year)	< 10	76.1±13.72	0.64	.634	
		10~19	77.9±11.25			
		20~29	77.2±12.92			
		30~39	73.6±13.33			
		≥ 40	72.7±14.63			
ADL		Independent ^a	70.2±13.97	10.32	< .001	a < b < c
		Moderate ^b	76.5±10.69			
		Dependent ^c	82.6±11.12			
Rehabilitation		Yes	75.3±14.26	-0.05	.960	
		No	75.4±12.77			
Health status		Healthy ^a	71.7±14.54	6.27	.002	a, b < c
		Moderate ^b	70.3±16.01			
		Unhealthy ^c	79.4±10.15			

된 자연스러운 건강상태의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장애자녀를 평생동안 돌보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기회가 일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 된 현재에도 장애자녀 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자신의 건강관리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주 수입원은 정부지원금이었으며, 가구 총 수입은 50~80만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장애자녀를 돌보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실시된 노인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월가구 소득은 157.5만원이며, 100만원 미만에 속한 노인이 48.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MHW, 2009a), 본 연구대상 노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노인이 88.6%로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경제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 노인의 경제수준을 조사한 Kim (2003)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67.2%가 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된 바, 대도시 지역에서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은 전체 노인이나 대도시 지역 거주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 노인은 지역주민센터 복지담당자의 협조에 의한 편의표출로, 복지담당자와 접촉이 빈번

했던 저소득층 노인이 연구대상에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는 수입의 일정 부분은 항상 장애자녀 돌봄에 사용하며, 이들에게는 정보보호금이 중요 자원이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점수는 5점 만점에 3.0점이었는데, 부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신중후군을 앓고 있는 부모의 자녀양육부담감이 2.7점(Sung & Paik, 1999), 암환자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이 2.7점(Park et al., 2001), 뇌성마비아 부모의 양육부담감이 2.8점(Lee & Eo, 2000)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이 2.8점(Kim & Lee, 1999), 재가 희귀난치성질환을 돌보는 배우자나 자녀의 부담감이 3.4점(Choi & Baek, 2006), 뇌졸중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주관적 부담감이 3.2점, 객관적 부담감이 3.8점(Hong et al., 2000)인 것과는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은 보였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경제활동 연령층에 해당되며, 신체적으로 노인에 비해 건강한 상태에서 자녀를 돌보게 되는데, 이에 비해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경우 신체적·심리적으로 노화되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애자녀 부양부담감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가 인지하는 부양부담감이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을 돌보는 양육부담감보다는 높았지만, 치매노인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감 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건강하던지 또는 건강하지 않던지 간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양부담감의 하위영역에서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었을 때 비해 노인이 되었을 때 신체적, 경제적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가는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가 경험하는 부양부담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반면, 노인부모가 대안 없이 지금의 역할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Eley, Boyes, Young, & Hegney, 2009) 이들 노인부모를 더 지치게 하며, 일반적으로 부양제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건강수준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Llácer, Zunzunegui, Gutierrez-Cuadra, Béland, & Zarit, 2002) 노인부모와 성인장애자녀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양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영역에 해당되는 자녀 돌봄 비용과 함께 노인부모의 건강상태 및 질병유무, 장애자녀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정도 등 건강 관련 요인이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부양부담감은 장애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 수준 등이 영향을 한다는 보고가 있으며(Haveman et al., 1997), 부모의 연령이 높고 장애가 심각할수록, 건강 수준이 나쁘고, 적응기술을 가지지 못한 자녀일수록 부모의 부담감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담감 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Greenberg et al., 1993) 장애인 및 노인부모의 건강관리가 이들의 부양부담감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이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성인이 된 장애자녀와 노인부모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상태 인지 수준을 높인다면,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이 감소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방문간호 활동은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96.9%)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로(Ryu,

Hwang, Suk, & Chin, 2005), 건강취약 집단인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하며, 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 정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가족은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홀로된 고령의 노인부모가 미혼의 성인장애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은 보통수준이었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신체적 영역의 부양부담감이 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돌봄 비용이 높고, 노인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장애자녀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정도가 낮은 경우에 부양부담감은 더욱 증가하였다.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은 신체적, 사회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노화와 관련된 어려움과 함께, 젊었을 때부터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장애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현실로 인해 일반 노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증대되는 노인인구의 건강요구가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노인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 대상 집단으로서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현황, 특성, 요구도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이 된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을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부양부담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성인이 된 장애자녀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해 성인장애자녀의 일상생활 수행도의 독립성을 증대시키는 것도 노인부모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인력과 자원의 추가 확대, 대상자 특성별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oi, K. J., & Baek, H. J. (2006). Burden and quality of life in caregivers of patients with rare and incurable disea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 17(3), 364-375.
- Eley, D. S., Boyes, J., Young, L., & Hegney, D. G. (2009). Accommodation needs for carers of and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regional Australia: Their hopes for and perceptions of the future. *Rural and Remote Health, 9*(3), 1239.
- Greenberg, J. S., Seltzer, M. M., & Greenley, J. R. (1993). Aging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gratifications and frustrations of later-life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33*(4), 542-550.
- Haveman, M., Berkum, G., Reijnders, R., & Heller, T. (1997). Differences in service needs, time demands, and caregiving burden among parents of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across the life cycle. *Family Relations, 46*, 417-425.
- Hong, Y. S., Suh, M. J., Kim, K. S., Kim, I. J., Cho, N. O., Choi, H. J., et al. (2000). Relations between perceived burden and social support of stroke patient's family caregiv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3), 595-605.
- Korea Disables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2009). *2009 Data on Registered Disabled*. Seoul: Author.
- Kim, H. O., & Jung, K. H. (2007). A study on the needs of health & community services among the disabled at home in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8*(3), 480-491.
- Kim, H. R. (2003). Health status among community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5), 544-552.
- Kim, Y. J., & Lee, P. S. (1999). A study of burden and depressive reactions of families who cared for patients suffering from senile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4), 766-779.
- Lee, H. J., & Eo, Y. S. (2000). A study on family functioning and burden of parents with cerebral palsy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6*(2), 199-211.
- Lee, J. Y., & Kim, Y. A. (2009). Relationship between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aregiv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 41-48.
- Lee, M. S. (1995). A study of burde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1), 26-36.
- Llácer, A., Zunzunegui, M. V., Gutierrez-Cuadra, P., Béland, F., & Zarit, S. H. (2002). Correlates of wellbeing of spousal and children carers of disabled people over 65 in Spain.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2*(1), 3-9.
- Maurer, F. A., & Smith, C. M. (2009). *Community/Public health nursing practice: Health for families and populations(4th ed.)*. St. Louis: Saunder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a). *2008 Survey on the Status and Needs of the Elderly in Korea*. Seoul: Autho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b, December). *2009 Registered Disabled Persons(National)*. Seoul: Autho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2010 Elderly Health and Welfare Service Guide*. Seoul: Author.
- Oh, K. S., Chae, S. M., & Cheon, N. Y. (200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amily burden questionnai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8*(3), 272-280.
- Paik, S. H., & Park, I. S. (1996). Social support and burde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1), 27-54.
- Park, H. R., Park, S. N., Jung, K. H., & Kim, H. J. (2001). The hope, burden and family funct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7*(1), 51-61.
- Park, J. S., & Oh, Y. J. (2003). A study health problem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4*(2), 274-286.
- Ryu, H. S., Hwang, R. I., Suk, M. H., & Chin, D. L. (2005). A study on evaluation of district visiting nursing services of urban health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2), 127-136.
- Smith, G. C., Hatfield, A. B., & Miller, D. C. (2000). Planning by older mothers for the future care of offspring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51*(9), 1162-1166.
- Son, Y. J., Choi, E. Y., & Song, Y. A. (2008).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and need of health education of the elderly-focuses on some elders living in Jeju.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2), 143-156.
- Suh, M. H., & Oh, K. S. (1993). A study of well-being in caregivers caring for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3*(3), 467-486.
- Sung, M. H., & Paik, S. N. (1999). A study on burden and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child with nephrotic syndr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5*(2), 125-135.
-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